

# “자비의 벽화로 범죄 예방해요”

## 부산 기장 동림사 방법 벽화그리기 캠페인

치안 취약지구 부산 기장 두호마을이 부처님의 자비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동림사(주지 성타)는 3월 23일 문화교묘의 일환으로 'CEPTED' 두호 행복마을 사업 중 하나인 벽화그리기 작업에 참여 방법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벽화그리기에 동참한 40여 신도들은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으로부터 평소 그림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다.

문화교묘를 꾸준히 행해오고 있다고 들었다. 벽화 사업에 동참해줄 봉사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동림사에 요청하니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주지 성타 스님과 신도님들 덕분에 마을이 환해졌다. 주민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벽화그리기에 앞장선 성타 스님은 "사찰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포교의 전부가 아니라, 불교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또한, 종교와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과 신도 40여 명이 3월 23일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다.

평소 미술을 가르치고 재능보시를 하는 것이 경전을 읽는 만큼 하나의 큰 수행이라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능보시에 참여한 동림사 신도 문옥현(58)씨는 "지금까지 그린 벽화들을 보면, 불교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또한,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다. 내가 그린 그림으로 마을이 안전해지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절에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행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공복만(79)씨는 "마을 분위기가 밝아진 것도 있지만, 봉사자들이 오시니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내 집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웃 간에도 대화가 늘었다. 또한, 스님과 신도님들의 그림이 깜깜한 밤에도 주민들을 보호해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월 중순부터 시작된 'CEPTED 두호 행복마을'은 4월 중순까지 벽화를 포함한 모든 치안 방편들이 완벽하게 구축된다. 또한, 이번 벽화그리기에 참가한 동림사 신도들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림교실 등을 열어 문화교묘와 재능보시에 앞장설 예정이다.

### 치안사각지대 두호 마을서 신도 40여 명 봉사활동 "그림으로 마음 평화 독려"

상관없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니 더욱더 의미가 깊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벽 대신에 색채가 가득한 벽화를 보며 불순한 마음을 먹었던 이들의 마음이 정화되길 바란다"고 벽화그리기에 동참한 것을 밝혔다.

덧붙여 성타 스님은 "누구나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문화적인 갈망이 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깨닫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그림을 배우도록 권한다.

부산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되는 'CEPTED(범죄예방단계)'는 방법 벽화그리기, 방범창 등 시설물 보강, CCTV 설치 등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치안을 보강한다는 취지하에 사업으로 부산 기장에서는 두호마을이 선정됐다.

두호마을은 지구대 경찰서와 원거리인 외진 마을로 고령자, 독거노인, 기초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치안사각지대이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 등 하향길을 만들고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마을 방범을 위해 벽화그림을 선택한 이종식 기장경찰서 경장(28)은 "동림사에서 그림 그리기 교실 및

# “창의성 있는 연등회로 인지도 높이자”

## 부산 연등회 학술세미나 3월 25일 부경대서

부산 연등회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3월 25일 부경대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다가오는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부산 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가 주최하고 부산교수불자연합회(회장 박영병 교수)가 주관했다.



부산 연등회 학술세미나가 3월 25일 부경대서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세미나의 1부에서는 학술세미나를 알리는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이윤희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신도회 회장,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사 스님 등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이윤희 신도회 회장은 "부산의 연등축제가 시민축제로 자리를 잡은 만큼, 부산 연등회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학술세미나가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펼쳐졌다.

채상식 부산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중세의 연등회와 그 역사상', 황경숙 부산시문화재단위원장은 '사월 초파일 연등회의 전통성과 전승 방안', 정은우 동아대 박물관 관장은 '정은우 동아대 박물관 관장은

은 '부산 연등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황경숙 부산시문화재단위원장은 "연등회를 지방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부산 연등회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등을 규명하고 연등회의 전통성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및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 중심으로 관련 문헌 및 구비 전승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과 더불어 부산 지역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우 관장은 "연등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정의식과 연등이다. 관정의식에 대한 전통성과 역사성

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전형적인 전통 연등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창의적인 경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화려하게 이뤄지는 사월초파일 연등행렬이지만, 불자들의 축제라는 인식은 높다. 대중적인 인지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제3부에서는 박영병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부산박물관 양병준, 최연주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정은 범어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이 부산 연등회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28주년 기념법회



운불련 창립28주년 기념법회가 3월 20일 대구 운불련 자비원 법당에서 열렸다.

### 3월 20일 자비원 법당서

한국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운불련(회장 송승갑)이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사부대중 300여 명 참여한 기념행사가 3월 20일 대구 운불련 자비원 법당에서 열렸다.

제1부 법요식은 김무용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했다. 통사 주지 상으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들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또한 각 지역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운불련 가족들에게 상장수여 및 상품전달을 했다.

성승갑 회장의 대회는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운불련 창립이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전법과 지역봉사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현재 1300여 운불련 회원들은 정법을 수호하는 거리의 포교사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해오면서 불자 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고있다. 그동안 운불련은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돕기, 장학금 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보시행으로 진정한 부처님 자비를’

### 방귀희 대표, 부산 환희불교복지대학 특별강연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환희 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 부산 관음사 주지)이 호스피스 제3기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방귀희(사진) 한국장애인예술훈예 대표는 '배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예비 호스피스들에게 불교사상과 사회복지에 대해 약 1시간 반 동안 가르침을 전했다.



방귀희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방귀희 대표는 "저는 1991년부터 숭대문화이라는 장애인 문예지를 발행해오고 있는데, 대표로서 후원금을 받을 때가 있다. 불교 종교단체는 항상 준다는 티를 내지 않고, 어떠한 의식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주신다. 티를 내지 않는 불교 보시행은 최고의 사회복지 실천법이다. 따라서 여러분도 불자이자 호스피스로서 사람들을 도와주다

는 것을 상을 내지 않는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 호스피스 제3기기는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간 동안 이뤄지며,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 진행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 “부산을 배워야, 부산이 성장한다”

### 허남식 부산시장 삼광사서 특강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3월 24일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사진) 특강을 열었다.

'부산, 세계인류 도시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우리 스님들이 마을살이를 한다면, 부산 시장님은 부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계

신다. 시장님의 추진력과 높은 성취로 인해 부산이 이만큼 도약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부산만큼 자연환경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곳이 없다. 교육, 문화, 금융 모든 것을 갖춘 남부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이 필요하다. 부산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키우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것이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2004년 제21대 부산광역시 시장으로 첫 선출됐으며, 민선 3선으로 현 2014년 까지 제23대 부산광역시 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부산 카포스, 저소득층 돕기

### 진각재단 낙동복지관에 100만원 보시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인 부산카포스 강서구지회(지회장 김종철)는 3월 24일 진각복지재단 산하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에 저소득 이웃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카포스 김종철 지회장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후원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큰 보시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회향하고 싶

다"고 후원의 취지를 밝혔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임광수 관장은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씩 희망적이게 변한다"고 표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임광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종철 부산 카포스 강서구지회장 및 부산 카포스 강서구 조합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형)**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자구 20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명(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영사용) 탈들이 방식**

노명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명, 탈들이

▶방생, 탈들이, 각종 행사에 적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